

## 심리학에서 氣의 문제\*

이양\*, 박형생†, 고재홍\*\*, 신건호\*\*\*, 이남표\*\*\*\*, R. Shaw\*\*\*\*\*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University of Connecticut, CESP\*\*\*\*\*

마음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접근하려는 심리학의 패러다임은 구조주의에서 시작하여 행동주의, 인지주의를 거쳐 신경주의에 이르렀다. 이들 패러다임은 각기 방법론을 개발하여 과학적 접근을 도모하였지만 현대 과학의 일반적 한계와 함께, 주체와 객체를 이분하는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구조주의와 인지주의는 주체 중심적이고 행동주의와 생리주의는 객체에 편파되었다. 이제 심리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체나 객체로의 편파를 극복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양 고전에서 나오는 氣개념을 사용하면 주체나 객체 어느 한 쪽에만 속하지 않고 주체와 객체가 공유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氣개념으로 종래 심리학에서 정리한 지각단서, 변별문제, 인지적 지각, 생리적 기제 등을 재해석하려 하였고, 氣의 영향으로 인한 지각 변화에 대한 실험증거도 제시하였다. 氣를 가정하는 접근(이하 氣모델)은 전통적 형이상학을 극복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나 분석적 모델을 벗어나려는 통합적 모델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氣의 개념화는 활동을 개념화한 생태주의 접근과 상통하면서 이보다 더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氣모델이 전통적 패러다임을 반성하면서 주체와 객체의 편파를 극복하려는 심리학의 새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포스트모더니즘, 생태주의 접근, 氣모델

\* 본 논문은 심리학의 패러다임 문제에 관심이 깊은 미국 University of Connecticut, CESP에서 생태주의를 이끄는 학자들(R. Shaw, M. Turvey, C. Carello)과 교류하고 심리학의 여러 분야를 망라한 저자들(이양: 언어, 박형생: 운동, 고재홍: 사회, 신건호: 발달, 이남표: 교육, R. Shaw: 지각)이 협동한 것이다. 내용은 일부 이양의 저서(2006, 심리학으로 본 기)에서 논의한 바 있고 이양의 실험실 학생들(조경래, 김영미, 양윤석, 유태선, A. Blair, 조형호, 박지영, J. Jin)들과 그 실험설계를 고민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의 심사와 수정과정에서 여러 심리학자들의 지도와 충고가 큰 도움이 되었다.

† 교신저자: 박형생,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10-9497-6409  
 E-mail: parkie@snu.ac.kr

마음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접근하려는 심리학은 과학적 체계를 갖추면서 패러다임이 변천해왔다. 먼저 내성법(introspection)으로 의식의 요소를 찾으려는 구조주의(constructivism)가 나타났다. 내성법의 주관주의를 비판하고 객관적인 행동관찰을 통해 행동법칙을 발견하려는 행동주의가 이어왔다. 어떤 행동도 내적 과정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지적 처리를 위주로 하는 인지적 접근을 거치면서 유기체의 내적 과정으로서 신경기체에 주목하는 신경적 접근에 이르렀다(이양, 2001).

패러다임이란 과학적 체계를 갖추는 데 적합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에 부응한 문제의식을 조성한다고 할 수 있다(Kuhn, 1970). 이와 같이 심리학의 패러다임들도 각기 당위성을 가졌지만 현대 과학의 일반적 사조와 함께 주체(subject)와 객체(object)를 이분하는 전통적 형이상학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신승환, 2003). 전통적 형이상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에 맞추어 심리학에서도 대안적 패러다임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주체와 객체라는 이분 체계에 소 보면 심리학의 패러다임 중 구조주의와 인지적 접근은 주체 중심적이고 행동주의와 신경적 접근은 객체에 편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주체나 객체로의 편파를 극복하거나 전체와 요소의 분리를 벗어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로 활동을 개념화하여 주체와 객체를 공유하려는 생태적 접근(ecological approaches)이 있고(Gibson, 1979), 홀론을 개념화하여 부분과 전체의 분리를 탈피하는 통합모델(김철수, 2004)도 있다. 나아가서 氣를 심리학적으로 개념화한 패러다임도 기대할 수 있다(이양, 2006; Lee, 2004).

氣란 동양의 고전에 따르면 주체와 객체가 공유할 수 있기에 氣를 근거하여 주체와 객체

는 상통할 수 있다(최한기, 1857; 손병욱, 2004에서 재인용). 최한기(1857)의 기학에서는 “天人之氣 一致” 적시하고 있다. 천은 객체이고 인은 주체이며 일통은 상통하고 일치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氣를 개념화하여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극복하는 것을 말한다. 개념적으로는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 자극과 반응의 관계, 지각과 운동의 통합, 및 생리적 기제 모두가 氣의 과정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실험적으로는 氣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의식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리학에서도 氣개념으로 전통 패러다임을 재고하고자 한다.

### 現심리학의 패러다임

심리학은 마음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우리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려 행동한다. 이는 의식이라는 주체와 환경이라는 객체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 심리학은 주관적 대상인 의식과 객관적 대상인 행동을 연구문제로 삼게 되었다.

주체와 객체라는 이분법에 근거한 상호작용이라는 패러다임은 Descartes가 확립한 것이고(조승욱, 1983), 이를 바탕으로 근대 과학이 발전을 이루었다. 근대 과학의 하나인 심리학도 이 패러다임 속에서 발전하면서 의식 중심 즉 주관적 심리학과 행동 중심 즉 객관적 심리학의 갈등을 빚어왔고 그 통합은 숙제로 남기고 있다.

**주관적 패러다임** Wundt가 확립한 내성법은 심리학을 일으키는 한 계기가 되었다. 내성법은 자기의 의식, 정서, 느낌을 살피고(성찰, 관찰) 언어로 보고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관적 방법론이다. 타인에게 자기의 의식은 관찰되지

못하기에 객관적일 수 없다. 그러나 구조주의에서는 내성법을 사용하면 의식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성법으로 분석한 의식의 예로는 Wundt가 검토한 정서구조를 들 수 있다. 정서는 쾌-불쾌, 안정-불안, 적극-소극 등과 같이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지고 이것들의 조합으로 여러 복합 정서가 생겨난다는 것이다(Woodworth, 1938). 성격도 몇 가지 요소로 기술될 수 있는데 외향성과 안정성의 두 차원으로 기술할 수 있다(Eysenck & Rachman, 1965). 이처럼 정서나 성격 등을 의식의 구조로 보고 그 요소를 기술하려고 했다.

Neisser(1967)는 ‘인지심리학’이란 책에서 의식을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제기하였다. 의식이라는 내적 과정은 지각, 기억, 사고 등으로, 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동 자료로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인지적 접근이라 하였으며 이 접근도 주관적 방법에 불과하였다.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예시하면, 지각 과정을 들 수 있다. 우리의 눈은 마치 사진기처럼 대상을 평면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입체를 지각한다. 이 과정은 평면에서 입체를 복원하는 데 몇 가지 경험적 단서를 활용한다고 한다(Hochberg, 1956).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인지적 표상이 개념화될 수 있다. ‘우리가 사물에 대해 갖는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 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사물들의 속성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Collins & Quillian, 1969). 이 위계적 구성도와 같은 표상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구조주의와 인지적 접근은 의식을 어떤 구조로 보았다. 이 구조에는 정서와 성격이나 지각

과 인지가 있다. 내성법은 자기 내성을 통해 정서나 성격의 요소를 명세하고자 했다. 인지적 접근은 지각, 인지 등을 인지적 모델로 설명하고자 했다. 내성법과 인지적 접근으로 분석된 의식의 요소는 직접 관찰되지 않지만 유추될 수 있는 내적인 표상이다.

내적 표상은 행동으로부터 유추된 것이고 그 유추는 논리적 전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타당성에 따라 표상의 구조는 자칫하면 심리적 실재라기보다 논리적 허구에 불과할 수 있다. 더 이상 허구적 유추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객관적 관찰을 방법론으로 하는 객관적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객관적 패러다임** 구조주의나 인지적 접근은 의식의 구조와 요소를 기술하지만 의식의 기능이나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기능이나 과정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 법칙에 따른다. 의식의 주관적 기술에만 머물 수 없고 행동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Watson, 1923) 이를 행동주의라 한다.

행동주의는 행동이 환경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점에 착안하였다. 행동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갖는 정서나 자연적으로 변하는 성숙과 다른 학습의 결과이다. 유기체의 행동과 환경간의 관계를 학습으로 보는 관점은 조건형성이라는 절차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조건형성은 특정 조건에서 특정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빨간 색을 보기만 하면 놀랄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자극과 특정 반응간의 관계를 연합이라 한다. 조건형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어떤 자극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을 고전적 조건형성(Pavlov, 1927)이라 하고, 어떤 자극을 얻기 위해 어떤 반응을

하는 방식을 도구적 조건형성(Skinner, 1938)이라 한다. 이 두 방식은 조건형성의 변수들을 분석하거나 그 효과를 응용하는 틀이 되어왔다.

Descartes는 신체와 정신이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했다(류의곤, 1987). 이 가정에 따라 신체적 과정에서 마음이 비롯되는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의식의 생리적 기제라 하고, 이를 다루는 심리학을 생리적, 신경적 접근이라고 한다. 이 접근의 대상인 생리적, 신경적 과정도 행동주의의 대상인 행동처럼 직접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미 밝혀진 의식의 생리적 기제를 예로 들면, 좌측 뇌와 우측 뇌가 의식에 관련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Sperry, 1974). 또한 좌측 뇌에는 우측 뇌와 달리 Broca 부위와 Wernicke 부위를 가지고 언어와 관련된 의식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행동주의나 신경적 접근을 내세우는 심리학의 패러다임은 현대 물질 중심 과학의 발전에 부응하였지만 의식 그 자체를 부정한 셈이 되었다. 소위 의식은 ‘검은 상자(Skinner, 1938)’에 비유될 만큼 의식의 문제가 심리학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심지어 행동주의 심리학이 근거한 학습이라는 과정에서도 행동이나 환경 변수 외에 내재적 변수의 영향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신경기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로 보았지만 신경학적 자료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의식의 구조에 대한 이론이나 개념을 전제로 해야 했다.

**現패러다임의 반성** 심리학은 19세기 이래로 현재까지 처음에는 의식의 구조에 치중한 심리학으로 시작하여 행동에만 주목한 심리학으로 바뀌었고 다음에는 인지 과정을 중시한 심리학을 거쳐서 이제 신경기제를 기대하는 심리학에

이르렀다. 심리학에서 패러다임은 바뀌지만 의식의 문제라는 기본적 질문을 가졌기에 구조주의, 행동과학, 인지과학, 신경과학 등은 시대적 주류의 동반자가 되었다.

심리학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관과 객관의 두 패러다임이 상호 갈등하면서 현대 과학의 숙명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심리학이 변천하면서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지만 그 변천은 주체와 객체의 이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의 편중을 번갈아 반복하였다. 처음 내성법은 의식의 구조 즉 주체에 치우친 구조주의이고, 그 다음은 행동의 환경 변수 즉 객체에 치우친 행동과학이며, 그 다음 인지적 접근은 인지적 변수 즉 주체에 치우친 인지과학이었고, 그 다음 신경기제 즉 다시 객체에 치우친 신경과학이었다.

심리학의 변천은 주체와 객체 사이를 두 번 오가면서 주관적 패러다임이나 객관적 패러다임을 번갈았다. 심리학은 발전해 왔지만 전통형이상학, 즉 주체와 객체 이분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 주관적 심리학이란 주체로서 의식을 중시한 나머지 의식주의(Turvey, 2004)라는 허무에 빠진다. 의식의 구조를 전제하면 표면이나 하위 의식은 내면적 혹은 상위 의식에 따르고, 이런 방식으로 의식의 주인으로서 더 내면적 혹은 상위 의식을 가정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객관적 심리학이란 객체로서 환경 변수(행동이나 신경)를 중시한 나머지 기계주의(Turvey, 2004)라는 허무에 빠진다. 행동 법칙이나 신경기제를 전제하면 의식이라는 내적 과정은 허구에 불과하고 오직 실재하는 것은 표면적이거나 하위 수준의 행동이나 기제만 있게 된다.

심리학의 패러다임이 지닌 한계는 고전적 형이상학이 겪는 운명과 같다고 할 수 있다(이양,

2001). 고전적 형이상학 즉 Platon의 이데이나 Aquinas의 항등이나 Descartes의 합리 등은 모두 주체와 객체의 이분 패러다임 위에 세운 체계들이다(신승환, 2003). Descartes는 주체나 의식은 객체나 물질과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은 비공간적이고 물질은 공간적이다. 고로 의식과 물질은 분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명제는 상호작용론으로 이어지는데 이 상호작용으로 주체의 객체 인식이 이루어진다. 상호작용은 자칫 분리의 약화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분리의 발전이다. 그것은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은 두 본체의 분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Heidegger에 따르면 이제 전통 형이상학은 숙명적 해체에 이르렀다(권승홍, 2005). 이에 심리학은 주관적이거나 아니면 객관적이어야 하는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 이미 형이상학의 해체는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에 올라 있다(신승환, 2003). 이미 주체 객체 이분 패러다임은 현대물리학에서 무너졌고(Capra, 1975), 전체와 요소의 분리를 지양하고 통합모델이 제기되기도 한다(Wilber, 1982).

Wilber는 전체와 부분의 분리, 주체와 개체의 분리를 문제시하고 과거 과학에서 채택한 모델들을 종합하여 우주적 존재에 걸맞은 하나의 통합모델을 제시하였다(김철수 2004). 그 모델에서는 Koestler가 고안한 홀론(holon)으로 존재를 개념화하였다. 홀론은 체제(holo-)와 요소(-on)를 합성한 용어로서 전체와 부분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존재는 전체적 체제이면서 부분적 요소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적한다(최효선, 1993). Pribram(1971)은 뇌의 기능은 특정 뇌 부위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뇌 전반에 잠재되어 있다는 등잠재성(equal potentiality)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요소적 신경기제를 부정하고 통합모델을

지지하는 것 같다. 이에 Wilber의 통합모델은 전체와 요소의 분리를 극복하고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거부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제 주체와 객체의 분리, 전체와 부분의 분리는 이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야만 한다. 이분법은 고전적 형이상학의 아성이고 현대 과학의 기본 패러다임이었다. 심리학도 이분법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여 그 발전이 주체 중심에서 객체 중심으로 오가는 것에 불과했다. 심리학도 탈이분을 맞아야 할 숙제를 가졌다고 본다. 고전적 형이상학의 해체 이후의 대안은 동양의 전통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본다(김용주, 1994). 동양의 도가 사상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라는 모델로서 심리학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Lee, 1989). 도가의 사상에서 주목해온 ‘氣’는 심리학을 탈이분의 패러다임으로 이끌 수 있는 개념일 수 있다. 심리학의 변천이 주관과 객관의 갈등에 매몰되었다는 점을 환기하면 이미 氣를 개념화할 만한 여지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 氣모델

현대 과학은 아직 氣를 개념화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찰이나 측정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氣현상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나 氣의 사진 촬영 등은 갖가지 물의만 빚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氣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실증과학이란 그 다루는 개념이 모두 관찰이나 측정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념이란 여러 수준의 위계를 갖는데 어떤 수준에서는 측정 관찰된 것이 있기도 하고, 다른 수준에서는 측정 관찰된 것에서 추정된 것도 있다. 심리학에서는 측정 관찰된 변수는 모두

행동자료일 것이다. 이러한 행동자료로부터 직접 관찰 측정되지 않은 변수를 가정할 수도 있다. 이에 직접 관찰되지 않은 ‘氣’라는 변수를 가정한 것 자체는 실증과학에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氣의 문제는 측정이나 관찰의 시비를 벗어나서 氣를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전을 살펴보면 氣는 실체로서 개념화할 수 있다. 氣란 주체인 의식과 객체인 물상의 사이에 있으면서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거나 동시에 그 둘 다일 수 있다. 다음에는 이러한 氣의 개념화가 현대과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이어서 氣를 가정한 접근이 이전에 정착된 심리학적 현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실체로서 氣** 氣라는 개념이 문헌에 등장하고 담론으로 삼게 된 것은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에서 비롯되었다(장현근, 2004). 그 중 처음은 도가에서 볼 수 있는데 “노자-제 42장”에는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권오현, 1991)이란 문구가 있다. 여기서 道는 무엇일까? “장자-大宗師”는 “道에는 행위도 형체도 없다”라 했다. 道는 실체가 아닌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다시 ‘道生一’을 보면 道에서 하나 氣가 나온다는 것인데 이는 그것이 道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와 다르다는 것이다. 곧 道가 실체가 아니라면 그 다음은 실체로서 氣이다.

氣가 실체로서 형을 갖추었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 실학자 혜광 최한기(1857: 손병욱, 2004에서 재인용)는 “氣學 1권 6절”에서 “運化有形之氣 天人一致”라 했다. “有形之氣”를 새기면 氣는 형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당시 형이상학적으로만 논의하려는 성리학과

크게 대비되고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은 소위 실학이 엮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성리학을 비롯한 中古之學을 배격하면서 그 비판에 유형을 갖느냐, 증험이 있느냐라는 기준을 세웠다. 이러한 동양의 전통을 참조해 보면 실체로서 氣의 개념화가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분명하게 실체 이전의 理와 실체로서 氣를 대비한 담론도 있다. 그것은 한국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理氣論 논쟁이다(윤사순, 1998). 이황의 ‘理氣互發’은 理와 氣가 서로 나오게 한다고 하여 理와 氣의 이원론적 입장이다. 반면 이이의 ‘氣發理乘’은 나오는 것은 氣이고 나오게 하는 것은 理이라고 하여 理와 氣의 일원론적 입장이다. 이 두 이론은 차별되지만 모두 氣를 형이상학적 理와 개념적으로 대비시켰다는 점에서 氣의 실체를 전제한 셈이다.

**주체와 객체를 공유하는 氣** 다시 氣를 처음 말한 “노자-제 42장”의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을 살펴보고자 한다. 道에서 나온 氣의 개념을 더 새겨보면 하나의 실체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셋이 나오고 셋에서 만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의 元氣에서 시작하여 두 개의 陰과 陽의 氣가 나오고 그 다음 셋째는 陰과 陽의 둘을 화합한 것이고 이에 萬物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노자의 말 속에서 만물은 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셋에서 나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주체와 객체의 이원분리를 거부하고 이들의 화합을 요구한 셈이다. 이 셋은 둘의 화합이니 주체와 객체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氣가 화합을 일으킨다고 직접 지적한 논의가 있다. 최한기(1857: 손병욱, 2004에서 재인용)는

주체와 객체를 氣가 화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氣學 1권 6절”에서 “運化有形之氣 天人一致”라 했다. 이 중 “天人一致”를 새기면 “氣는 하늘과 사람을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늘은 객체를, 사람은 주체를 지칭한다. 또 “氣學 1권 2절”에서도 “大氣와 心身之氣는 상통한다”고 했는데, 이를 새기면 자연은 대기로서 사람은 심신지기로서 상통한다는 것이다.

동양에서 오랫동안 논의한 氣는 형이상학적 개념 道와 달리 실체이다. 이 실체로서 氣는 근원적 존재이고 주체와 객체를 화합한다. 이는 동양 고전만이 주장하는 것일까? 우리는 주체와 객체는 현실에서 바로 관찰되고 또 그들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더욱 논의해 봐야 할 것인데, 동양의 고전이 아닌 서양의 현대철학이나 학문에서도 비록 관찰되지 않은 존재일지라도 잘 개념화되는 예시가 있다. 일찍이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경계하여 Spinoza는 제 3의 존재, 신(god)을 근원에 개념화하여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극복하려고 했다, 이 논조가 현대에 이어져 Strawson은 인성(person)을 근원에 두면 주체와 객체가 일치할 수 있다고 했다(조승욱, 1983). 여기서는 공히 근원을 개념화하였고 주체와 객체는 근원으로 나오는 표면구조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근원과 표면의 이중수준에 대한 개념화는 언어학 등 다른 학문도 따르는데 Chomsky(1965)의 심층구조와 표면구조의 변형생성의 문제는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에 氣의 개념화는 주체와 객체의 이분을 극복하고 형이상학의 해체 다음에 등장할 패러다임으로 기대된다.

**탈이분으로서 氣의 개념화** 이제 주체와 객체 즉 의식과 물질의 분리 패러다임을 탈피하는 氣의 개념을 제시해 보자. 고전 중 진실한

담론은 오랜 검증을 통해 일상화되고 상식이 통용되는 언어에 그 자취를 남기게 되는데, 氣의 개념 또한 일상용어에서 그 예시를 찾을 수 있다(박희준, 1978).

氣가 들어간 용어를 보면 심기, 기분, 내기, 분위기, 기후, 외기, 열기, 혈기 등 다양한데 이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心氣’와 같이 마음에 붙인 것이고 나머지는 ‘血氣’와 같이 몸에 붙인 것이다. 이와 같이 氣라는 말이 의식과 물질 모두에 붙일 수 있지만 그 한 쪽에만 속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도 향하고 있다. 예를 들면 心氣에는 마음에 붙어 있지만 ‘건강’을 뜻하면서 신체 문제에 관여한다. ‘血氣’는 신체에 붙어 있지만 ‘의욕’을 뜻하면서 마음의 문제에 관여한다. 이에 의식에서 물질을 뜻하거나 물질에서 의식을 뜻하려면 ‘氣’라는 개념을 붙여 용어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Lee,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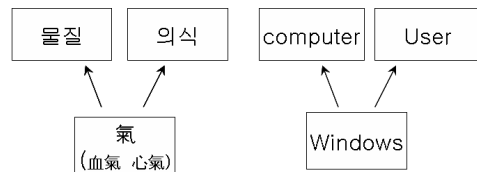


그림 1. 기와 Windows의 비유

氣는 물질에서 의식으로 또 그 역으로 통한다. 이는 Windows를 통해 user가 computer를 파악하고 동시에 조작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도식을 생각해 보면(그림 1 참조) ‘氣’라는 것은 순수하게 의식/주체나 물질/객체 어느 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氣는 일반적으로 주체의 에너지나 물질의 에너지로만 볼 수 없다. 氣란 주체나 객체가 상통할 경우에만 확인될 수 있다. 표면적 구조에서 구분되는 주체와 객체가 氣에 의해 상통하면 더 이상 주체

와 객체의 구분도, 주체의 氣 객체의 氣 등과 같은 구분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예시한 혈기(血氣)와 심기(心氣)는 주체나 객체 어느 한 쪽에 속하지 않기에 이 氣로써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다. 이와 같은 氣의 개념화는 전통적 패러다임인 주체와 객체의 이분을 해체한다. 전통적 패러다임은 氣와 같은 근원을 생각하지 않기에 주체와 객체는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을 것이다. 한 가지 지적할 문제는 이분법도 상호작용을 가정하지만 그것은 제삼자가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영향을 줄 뿐이다.

氣패러다임에 대한 논란은 자못 심각하지만 주체와 객체의 이분을 해체하는 도식 중 일상에서 친숙한 예가 있다. computer와 user간 Windows의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user와 computer는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Windows라는 매개를 통해 양방향적 작용이 가능하다. user는 Windows를 통해 computer를 조작하고 computer는 Windows를 통해 user에게 정보를 준다. 이 양방향적 작용을 원활히 하려면 Windows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Windows는 user의 성향과 computer의 성능에 맞추어 가면서 개량되고 있다. Windows가 user와 computer를 매개하는 방식은 氣가 의식과 물질을 중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심리학에서의 氣모델

이제 computer와 user간 Windows의 자리매김이 이해되듯이 氣를 가정한 모델(이하 氣모델)도 구현될 수 있다. 現심리학이 주객의 이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해 심리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중 어떤 현상은 超심리학적인 것으로 외면해 버린 것도 많았다. 이제 氣를 가

정하면 심리학다룰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氣의 개념은 동양의 전통 담론에서 그 자리매김이 분명했지만 아직 실증과학 일반에 생소하고, 과학 패러다임에 걸맞아 보이지 않는다고 외면당하기도 한다. 한편 氣는 아니지만 氣와 버금가는 변수를 잡고 現심리학을 개혁하려는 한 패러다임이 현재 과학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활동(action)’이라는 것을 氣의 자리매김과 비슷하게 개념화한 패러다임이고 이를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이라 한다(Gibson, 1979). 여기서 활동은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으로 개념화된다. 전통적으로 활동은 주체가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주체에서 나오고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개념은 다른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이 주체에게 요구하는 활동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뜨거운 컵을 들 때 손잡이를 드는 활동은 주체인 사람이 통제하는 것임과 동시에 객체인 뜨거움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일 주체와 환경을 분리하고 보면 주체가 환경을 통제하는 활동과 환경이 주체에 요구하는 활동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리구도 역시 실제 활동의 개념에서는 있을 수 없다. 잔을 드는 활동은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들기 쉽게 고안된 손잡이 모양이 서로 부합되게 한 것이다. 이 경우 활동은 주체의 통제만이 아니고 환경의 요구와 굳이 구분할 것도 아니다. 이 활동을 중심으로 보면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보면 氣모델처럼 생태주의도 전통적 주체/객체 이분 패러다임을 극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 활동은 의식이라는 주체와 환경이라는 객체에서 氣와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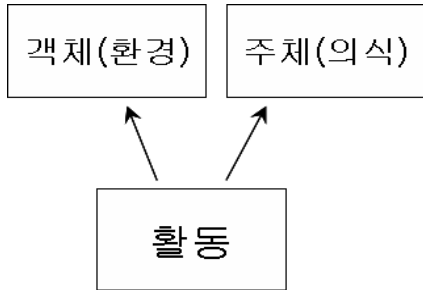


그림 2. 생태주의 패러다임.

활동을 통해 주체는 객체를 통제하고 동시에 지각한다.

氣와 활동이 유사하다는 개념화는 동양의 담론에서도 등장한다. 최한기(1857: 손병욱, 2004에서 재인용)는 “氣學 1편 6절”에서 “運化有形之氣”라 했는데 이를 새기면 형태를 가지는 氣는 운화라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氣學 서”에서 “氣는 活動運化하는 것이다”라고 반복했다. 조금 은유적이지만 이이가 말한 ‘氣發理乘’을 새기면 이는 “氣가 나와서 理를 탄다”라는 의미인데(윤사순, 1998), ‘나오고 타는 것’이 氣라면 氣는 분명히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활동은 환경을 통제하는 수단이라 보지만, 활동이 대상을 지각하게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사람은 책상과 걸상 사이에서 그 간격을 지각한 후 앉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앉은 후 그 간격을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활동은 대상의 통제와 지각이라는 양면을 갖는다. 개구리의 경우를 보면 활동을 통해 먹이를 잡기도(통제) 하지만 활동을 통해 먹이를 찾기도(지각) 한다. 이에 지각이 먼저이고 활동이 다음이라는 통제 활동이 있는가 하면 활동이 먼저이고 지각이 다음인 지각활동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氣가 양방향적인 것처럼 활동도 양방향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양

방향적 활동은 통제로서나 지각으로서 모두 생존 정보를 소통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information)는 환경이 유기체에게 주어지는 생존에 관련된 부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Gibson이 개념화하였고, Shaw는 의도(intention)<sup>1)</sup>로 그 개념을 확장시켰다(Turvey & Shaw, 1995). 환경과 유기체는 생존을 위해 조율되어 있다(tuning)고 하는데 이는 정보가 소통되면 의도가 구현되고 생존을 도모하는 것과 같다. 유기체는 생존을 위해 환경과 조화하고 정보를 소통하며, 의도를 구현한다. 이렇게 개념화되는 생존은 동양 고전에서 말하는 氣와 같다. “장자—知北游”는 “氣가 모이면 생명이 있고 氣가 흩어지면 죽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氣가 소통되면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현대물리학에서 양자의 존재에 대한 담론은 고전 패러다임에 비해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Heisenberg는 양자의 존재가 불확정적이라 하는데 이는 허와 실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허와 실의 공존이란 관찰자가 에너지의 영향을 확인할 때만 실(존재)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허란 의미이다. 이를 Heisenberg는 관찰자변수라 하였다. 존재는 입자간 정보가 소통될 경우에만 확정된다(박병철, 공국진, 1992; Wilber, 1982). 이는 氣가 그 활동이나 영향으로 입증된다는 것과 같다. 최한기(1857: 손병욱, 2004에서 재인용)는 “運化有形之氣(氣學 1권 6절)”라 했다. 이를 새기면 氣는 운화(운행하여 변화시킴)하여야 유형(존재를 가짐)으로 증명된다는 것이다.

우선 고전에 도전하는 패러다임으로서 성공적인 현대물리학과 생태주의는 氣의 개념화에 동의하는 것 같다. 氣의 개념화에서 氣의 유형은 그의 운화로 증명된다고 하였다. 이를 뒷받

1) 의도란 유기체가 환경에 가하는 생존을 위한 통제이다.

침하듯이 생태주의도 활동이나 정보를 생존의 근거로 보았다. 이와 같이 현대물리학도 에너지의 영향이나 정보의 소통을 존재의 입증으로 삼았다. 이처럼 차후의 주요 패러다임들이 기 개념에 동의하는 것은 형이상학 해체 이후의 대안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생태주의도 고전적 패러다임의 대안이 된다면 굳이 氣 개념화를 내세워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이에 답하자면 氣모델의 氣와 생태주의의 활동이 유사하지만 氣는 활동을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예시하면 우리는 뜨거운 커피 잔을 잡을 때, 커피를 쏟지 않은 통제 활동과 커피의 열을 느끼는 지각 활동을 동시에 하면서 안전(생존)을 도모한다. 이러한 측면은 생태주의가 말하는 생존을 위한 통제로서 동시에 지각으로서 활동이다. 이 때 커피 잔 중 손잡이 부분이 안전할 것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고, 이에 조율되어 있는 사람의 손은 안전하게 잡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역시 생태주의가 말하는 정보와 의도의 조율이다. 여기서 무엇이 손과 손잡이를 조율시키는가? 손잡이에서 풍겨 나오는 열(熱)과 손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내성(耐性)이다. 이 열과 내성은 활동 그 자체는 아니고 활동을 일으키는 변수이다. 이 두 변수의 균형에 따라 손이 여기저기 잔 주변, 잔 가장자리 마침내 손잡이에 도달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비로소 일으키면서 안전의 도모와 커피의 습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한다. 여기서 열과 내성이란 두 변수가 조율되어 생존의 타당성을 도모하는데 이 두 변수는 활동이 아니라 氣로 개념화할 수 있다.

氣는 직접 관찰될 수는 없지만 활동으로 수렴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氣모델로 재해석하는 심리현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기의 개념화는 대상과 유기체의 회합으로서 탈이분적

진전이라 하겠다. 이제 氣의 개념화는 심리학에서 발전적으로 내놓는 생태주의와 맥을 같이하면서 그 연장선에 자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 氣모델로 재해석할 수 있는 심리현상

現심리학은 마음 자체가 갖는 모호한 개념이나 과학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더욱 냉정하게 미신을 경계하였던 것 같다. 이에 심리학은 주체와 객체의 분리 패러다임에 맞는 변수만 고집하면서 과학성을 유지하여 왔다. 그 와중에 어떤 마음의 현상은 교묘히 왜곡하였고 더욱이 어떤 것은 심리학의 밖으로 밀어내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우리 일상에서 친숙하지만 질문을 꺼려야 하는 것도 많다. 이제 氣라는 변수로 심리학에서 기본으로 알려져 있는 현상을 다루어 보면서 결국에는 무엇이 과학적인가라고 논의를 이끌어보겠다. 또 각 예시에서 現심리학의 이론을 적용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겠다.

**거리나 입체 지각에서 氣 : 지각 단서의 한계** 거리, 즉 입체 지각은 심리학의 기본 문제이고 現심리학에서 건전하게 논의된 문제이다. 이제 이 문제를 氣모델로 설명하는데 시범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이미 現패러다임을 넘어선 생태주의 접근이 사용한 개념 '활동'이나 '정보'를 끌어오면서 氣모델로 재해석해 보겠다.

개구리는 氣를 활용하여 먹이의 위치를 파악하고 먹이를 포획한다. 먹이가 나는 순간은 포착하기 쉽지만 먹이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 입체감을 얻기 위해 개구리는 자기 머리를 흔들어 본다. 이 때 개구리는 활동을 통해 탐색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氣를 활용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氣의 활용은 생태주의의 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도랑 앞으로 걸어서 갈 때는 그 간격이 건너기 힘들 정도로 멀게 느껴지지만, 뛰어서 갈 때는 그 간격이 건널 만큼 가깝게 느껴진다. 걷거나 뛰는 것은 氣의 수준이고 그 수준에 따라 거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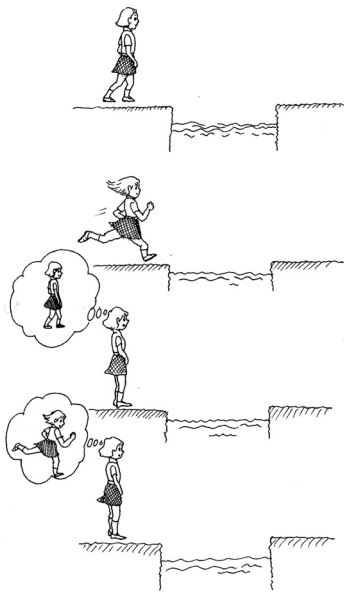


그림 3. 도랑 건널 때 활동이나 氣의 활용

떨 때는 걸을 때보다 도랑이 건널만하게 그 폭이 좁아진다. 뛰지 않고도 氣를 활용하면 폭을 좁힐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뛰거나 걷는 것이 ‘활동’이지 굳이 ‘氣의 활용’이라고 개념화해야 하나? 이를 활동으로만 개념화하면 생태주의에 그칠 것이다. 활동 이상으로 개념화해야 할 필요성을 예를 들어 제기하겠다. 사람이 뛰지만 기력이 소진되었을 때는 뛰어넘을 간격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가만히 있지만 기력이 왕성하면 간격이 줄어들 것이다. 같은 도랑이지만

성인은 어릴 때 보았던 것보다 그 간격이 줄어들어 든 느낌을 받을 것이다. 뛰거나 가만히 서거나 하는 것은 단지 외부 활동이고 실제 변수는 氣의 수준일 것이다(이양, 2006).

피로의 정도나 근력의 강도 등은 여전히 신체적 에너지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체적 에너지도 경우에 따라 정신적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 약물 등의 정신활동 효과를 고려하면 신체적 수준을 넘어선 정신적 변수도 있을 수 있다. 암컷 생쥐에게 수컷 오줌(안드로젠 함유) 냄새만 맡게 해도 암컷의 발정기 촉진되고 더욱이 함께 있던 여러 암컷의 발정 주기가 일치하게 된다(Whitten, Bronson, & Greenstein, 1968). 이는 신체적 대사나 정신적 변화가 다른 개체의 호르몬에 의해 조율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율 방식으로 한 개체의 氣가 다른 개체에 공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氣는 외부의 활동, 에너지 수준이자 이를 넘어 설 수 있다는 열린 체계(open system)로 개념화해야 할 것이다.

氣가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적 조작은 흔치 않았다. 이양(2007)은 피험자가 달리는 동안 제시된 선분의 길이를 추정하게 하여, 운동할 때 기운이 높아져 길이를 짧게 느끼게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피험자가 러닝머신에서 일정 속도(시속 4km)로 달리고 있는 동안, 고정 거리(2m)에 떨어져 있는 스크린에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선분(90cm, 95cm, 100cm, 105cm, 110cm)이 가로나 세로로 하나씩 무순으로 제시되었다. 피험자는 그 길이를 추정하였고, 피험자의 추정치는 그 피험자 내에서 표준 점수로 환적하여 다른 피험자와 비교하였다. 매 피험자가 정지 중과 운동 중에 길이를 추정하게 하여 추정의 개인차를 통제하였다. 한 피험자 집단은 운동 직전 정지 기간, 운동 기간,

운동 직후 정지 기간으로 길이 추정 구획을 세 개를 잡게 하고 또 다른 한 집단은 운동 한참 전 정지 기간, 운동 직전 정지 구간, 운동 기간의 세 구획, 마지막 한 집단은 운동 기간, 운동 직후 기간, 운동 한참 후 기간의 세 구획으로 잡게 하여 운동 기간이 언제나 중간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실험 결과를 보면 피험자들은 그림 4와 같이 운동 기간 중에는 선분의 길이가 더 짧게 추정하였다. 이는 운동이라는 활동이 길이 추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변수의 영향은 생태주의의 예상에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운동 직후 정지 기간에도 길이가 짧게 추정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운동 중에 기운(氣)이 높아져서 그 여력이 지속할 수 있으므로 운동 중뿐만 아니라 운동 직후 정지 기간에도 길이가 짧게 추정되었다. 물론 氣의 수준은 에너지나 주의의 분포와 같이 상승과 하강의 순간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그 효과가 정적일 수도 있고 부적일 수 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활동만을 변수로 한 생태주의를 넘어서서 기운 등과 같은 氣를 가정한 모델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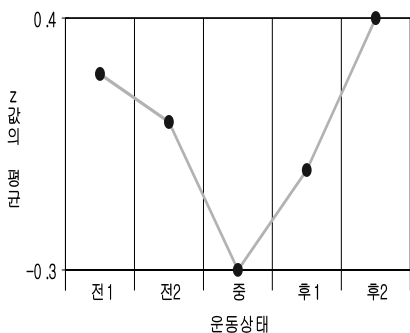


그림 4. 운동 중 길이 지각의 변화

운동 상태(중)와 정지 상태(운동 전 1과 2, 운동 후 1과 2)에서 길이를 추정하게 한 값(2로 환산)을 비교하면 운동 중과 그 직후에 길이를 줄여 지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氣의 과학화를 위하여 氣의 직접적 측정이나 관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행동 관찰을 중시하는 행동주의 입장이지만 다른 패러다임에서는 변수의 직접 측정이나 관찰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심리학의 실험에서는 이미 관찰이나 측정된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 행동 자료일 수밖에 없다. 이에 氣의 효과도 관찰이나 측정되면 그것은 행동 자료가 나오는데 이로써 氣라는 변수를 가정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실험절차에서 외적 활동이 없는 기간에 관찰된 길이 추정의 변화는 일종의 행동 자료이고 이로부터 氣의 영향이 행동에 나타난 효과라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길이 추정에 나타난 효과가 바로 氣의 영향이라는 것은 더욱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만 본 실험결과에서는 길이 추정 효과가 외적 활동 없이 관찰되었으므로 그 이상을 넘어선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그 변수는 외적 활동 기간에도 작용하였고 그 후에도 지속한 것이므로 활동을 일으키면서 그 이후에도 남을 수 있는 변수로서 氣(기운 등)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氣가 직접 측정되거나 관찰되지 않았지만 그 변수를 가정하고 그 효과를 행동자료로부터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행동 관찰만을 고집하던 행동주의와 논쟁했던 인지적 접근이 선례를 남겼다(Tolman, 1948). 당시 인지는 직접 관찰 측정된 것이 아니지만 외적 수행 없이 일어난 학습이라는 행동 자료를 관찰하여 가정한 변수이었다.

現심리학도 거리나 입체 지각을 지각 구조라

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한다. 지각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데 눈은 바로 입체를 지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눈의 망막은 평면이라 거기에 맺히는 상 그대로는 입체가 아니고 역시 평면이다. 이 평면적 상으로부터 대상의 입체감, 거리감을 구성하기 위해 단서를 사용한다. 그 단서는 경험적 지식인데 상대적 크기, 즉 작게 보이는 것은 먼 거리에 있는 것, 중첩, 즉 포개진 것은 뒤에 있는 것 등이 있다. 이 지식은 거리나 입체를 사전에 확인해 본 경험에서 나온다. 이처럼 우리는 대상을 지각할 때 경험적 지식을 사용한다 (Gregory, 1974)<sup>2)</sup>. 이 주장은 그 전제에 문제가 있다. 즉 우리가 대상을 지각할 때 경험적 지식을 사용한다면, 경험적 지식이 없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리나 입체를 지각할 수 있나? 라는 근원적 모순을 갖고 있다. 이 모순은 결국에는 경험적 지식의 진실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험적 지식은 내적 표상으로서 지각을 주도하는 주체이다. 이와 같이 한번 내적 주체를 가정하면 그 다음 주체의 주체, 즉 연속 주체를 가정해야 하는 문제에 빠진다. 이러한 근원적 모순과 연속 주체는 거리나 입체의 지각이 평면적 망막 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이미 내포한 한계이다. 거리나 입체 지각에서 활동이나 氣를 변수로 삼으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활동이나 氣 변수는 이미 입체 정보를 갖고 있기에 경험적 지식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

**변별 문제에서 氣 : 조건형성의 한계** 現심리학은 전문가의 변별 문제에 호기심을 갖고 학습이나 주의집중 등 이론을 끌어 쓰지만 결

국에는 이 문제를 등한하기에 이르렀다. 氣패러다임은 이 문제를 거리 입체 지각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 무예에서 이르기를, ‘상대의 틈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이상으로 보라’고 한다. 곧 눈이 아닌 氣를 활용하여 상대의 틈을 놓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사수는 조그맣게 보이는 표적을 氣로 키워서 본다. 이러한 주장은 이전에 신비주의라 매몰되었지만, 이제 氣로 도량 간격을 좁게 줄이는 그림 3과 같은 예를 고려하면 신비주의라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도량을 건널 때는 걷거나 뛰는 활동이 있지만 사수는 가만히 서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어떻게 사전에 서 있는 사수가 내면적으로만 氣를 활용할 수 있을까? 과연 사수는 모든 활동을 접고만 있을까? 사실 사수는 팔과 활을 움직이고 고개를 움직이며 숨을 고르면서 마치 도량 앞에 뛰는 것처럼 활동을 동반해서 氣를 활용할 것이다.

직접적 활동을 보이지 않고 氣를 활용하여 지각력을 높이는 예가 많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 보기에는 놀랍게도 우리 한글을 잘 변별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볼 때 ‘다 또는 타’에서 그 조그만 획을 놓치거나 흑시글자를 잘 못 쓴 것처럼 볼 수밖에 없다(이양 2003). 이들과 달리 우리는 ‘타’와 ‘다’를 다르게 하는 ‘ㄷ’ 가운데 짧은 획을 키워서 본다고 할 수 있다. 수십 가지 포도주를 맛 하나로 감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사수가 과녁을 키워서 보느지를 검토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사수들의 내성은 단지 과녁을 맞힌 후 느낌과 같은 인지적 해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야구 경기 중 타자가 안타를 치고 난 후 공을 크게 평정하였다는 실험 결과(Witt & Proffitt, 2005)는 사후에 얻은 측정

2) Helmholtz가 제안했던 무의식적 추론이다.

치에 불과하고 이는 기억의 재구성일 수도 있다. Lee와 그 동료들(2007)은 사후 측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수가 과녁의 적중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방금 사격한 과녁의 크기를 추정하게 하였다. 그 실험 결과는 과녁의 적중 점수와 크기 추정치간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 다음 실험에서는 어떤 변수가 과녁의 크기를 크게 지각하게 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과녁을 겨냥하는 팔의 통제를 조작하였다. 그 결과에서 팔의 겨냥이 받침대로 지지될 때<sup>3)</sup> 과녁을 크게 추정하였다. 이러한 안정된 겨냥의 효과는 사수의 통제력이나 기운이 미치는 지각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람들이 등에 짐을 지고 있을 때 언덕이 가파르거나 갈 길이 더 멀어 보였다는 실험 결과들(예: Balla & Proffitt, 1999; Proffitt, Stefanucci, Banton, & Epstein, 2003)은 기운의 소모가 미치는 역효과라 할 수 있다.

現심리학도 전문가의 변별을, 객관적 패러다임에서 조건형성이라는 학습으로, 주관적 패러다임에서 주의집중이라는 인지구조로 설명하는 한다. 인지구조라는 변수는 결코 과거 경험과 그 경험을 활용하는 내적 주체를 가정해야 하고 한번 내적 주체를 가정하면 그 다음 주체의 주체, 즉 연속 주체를 가정해야 하는 문제에 빠진다. 氣나 활동을 가정하면 객체와 주체의 분리 패러다임과 이에 비롯된 연속 주체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현상을 다룰 수 있다고 본다.

現심리학의 조건형성은 고전적 조건형성이든 도구적 조건형성이든 모두 강화를 필수적 조건으로 한다. 즉 강화라는 환경 변수가 주어져야만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인지적 접근은

3) 숙련자는 겨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초보자를 피험자로 하여 받침대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를 반박하면서 ‘강화 없이 일어나는 학습’을 주장했다(Tolman, 1948). 그의 개념 ‘강화는 이미 학습한 것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氣의 문제로 바꿀 수 있다. 그의 예시, ‘미로를 이미 알고 있는 쥐는 강화가 주어질 때만 그 미로를 수행한다’는 실험 결과는 강화가 수행의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동기는 氣의 발동으로 유기체의 목적 활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강화가 동기로 작용한다면 강화가 직접 주어지지 않더라도 강화를 기대하는 조건만으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대리적 강화라 부른다(Bandura, Ross, & Ross, 1963). 이들의 연구에서 아동들은 ‘TV 폭력극에서 주인공이 상을 받게 된다’는 대리적 만족을 통해 폭력행동을 모방하였다. 이를 보면 강화 그 자체가 변수가 아니라 氣, 즉 동기가 수행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월적 지각에서 氣 : 인지구조의 한계** 앞에서 살펴본 사수의 과녁 확장의 예는 超심리학적 문제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이는 글자 변별을 설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미 現심리학의 이론으로 상식이 된 현상도 뒤집어 보면 아직 경계하는 氣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超심리학적 문제였다. 이 맥락에서 現심리학에서 외면한 초월 지각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자.

예를 들어 서예 작품은 동양 미학의 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서예가 생소하여 그 미학을 超심리학적이거나 도외시했음지도 모른다. 아마 그 예술은 철필이나 타자로 쓰는 표음 알파벳에는 발전하지 못하고 붓으로 쓰는 글자, 더욱이 상형문자인 한자에서 더 발전했을 것이다. 서예의 평에서는 용의 기세를 거론한다. 과연 서예에서 용이 보이는가? 용의 그림은 아니다. 용을 알리는 정보가 소통되거나 용

의 기체가 엿보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용의 기체가 누구에게나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초월적 지각이라 할 수 있고, 미적 문제 이기에 미학적 지각이라 할 수 있다(이양, 2006).

일상적 문제를 예시해 보자. 우리는 풀 쉼을 거닐 때 버려진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놀랄 수도 있다. 이는 새끼줄에서 뱀의 기세를 느꼈기 때문이다. 새끼줄은 뱀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 그 정보를 소통한다. 이러한 현상을 現심리학에서는 인지구조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새끼줄에 뱀의 모양을 상기시키는 단서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뱀 모양에 대한 표상을 갖고 이는 사전 경험에 의한 지식이다(Bruner, 1973). 이러한 이론은 객체와 분리된 주체를 가정하고 주체 내의 표상을 관리하는 다음의 주체 즉 ‘연속 주체’라는 미궁에 빠진다. 이와 같이 구조주의 이론에는 한계가 있다. 지식에 의해 새끼줄을 뱀으로 추론하였다면, 한번 새끼줄이 뱀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면 뱀으로 지각하지 않거나 그 놀람이 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뱀이 아닌 것을 알고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이다. 놀라게 된 것은 추론에 의한 느낌이 아니라 정보나 기세로 위협을 받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초월적 지각 문제란 서예에서 용의 기세를 본다는 것과 새끼줄에서 뱀의 기세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여전히 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풀 쉼의 뱀 기세를 우리들 모두 느끼지만 서예의 용 기세는 일부만 느낀다는 점이다. 이는 서예와 풀 쉼이 갖는 생존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예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만 그 기세를 느낄 뿐이다. 이는 일반인이 서예와 덜 조율되어 있다는 것이다.

## 기계주의와 의식주의의 극복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관적 패러다임이 중점으로 다룬, 지각에서 경험적 단서나 인지에서 표상은 물론이고 객관적 패러다임이 중점으로 다룬, 학습에서 조건형성 등은 모두 氣 패러다임으로 바꿔 설명할 수 있었다. 이들 패러다임은 모두 現심리학의 발전 면모를 과시하고 있었지만 그 한계를 숨길 수 없었다.

과학은 그 발전에서 패러다임을 바꿔 가면서 그에 상응하는 문제의식을 갖고(Kuhn, 1970), 심리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심리학은 그 패러다임이 구조주의, 행동주의를 거쳐 현대는 인지과학 및 신경과학으로 발전하였지만 모두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양극단을 오가면서 한계를 보였다(이양, 2006). 곧 주체와 객체라는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여 한편으로 주관적 심리학은 객체에 대한 내적 표상에만, 즉 주체 기호에만 함몰했다. 이는 주체의 주체를 연속하는 의식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과학을 배반하는 또 다른 미신적 개념을 초래하였다. 다른 한편의 객관적 심리학은 의식을 허구에 불과하다고 보고 객체 자체의 기호에만 몰입했다. 이로써 주체나 의식에 무관한 기계주의에 빠지고 말았다(Turvey, 2004). 이 역시 의식에 대한 과학을 포기하고 만 것이다.

물론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분석주의는 외면하기 어렵지만, 이미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다임에서 그 극복을 위한 시도가 이루지고 있다. 현대물리학은 기계론적 이론이나 결정론적 인과를 초월하고 있다(Wilber, 1982). 생태주의 심리학은 주체와 객체의 이분을 활동이나 정보소통으로 극복하고 있다. 氣의 개념화는 현대물리학이나 생태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氣가 주체와 객체를 상통한다는 것을 적시한다.

이분을 극복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활동’과 ‘氣’를 변수로 삼았다. 이 변수들로 現심리학이 다루었던 현상들을 재해석할 수 있었고, 기존에 제외시킨 超심리학적 문제도 신비주의에서 발굴하였다. 이제 기존 심리학이 놓친 진실한 문제가 설명되기 시작하고, 동양에서는 상식화된 초월적 지각도 과학화에 이르렀다(이양, 2006). 생태주의 심리학은 유기체와 환경을 관련시키는 패러다임으로 現심리학을 탈피하였다. 이는 객관적 심리학의 기계주의를 거부하면서 주관적 심리학으로 전향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주관적 심리학의 의식주의를 거부하면서 객관적 심리학으로 전향하지 않았다(Turvey, 2004). 氣모델도 생태주의 심리학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기계주의를 거부하고 의식주의를 거부한다. 더욱이 氣는 생태주의의 활동을 넘어서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이로써 氣의 개념화는 심리학의 문제를 확장할 수 있고, 물리학과 같이 동양사상과의 통합적 시도에 가담할 수 있다.

氣의 개념화는 아직 신비주의로 매몰될 우려가 있는 것이지만 문제의 범위가 개연적이라는 것이다. 동양의술의 관건인 맥진의 원리가 그 예이다. 맥진은 전문가만 도달한 초월적 지각이다. 일반인은 맥상에 조율되어 있지 않아서 맥이 뛰는지 또는 빠르지만 겨우 알 정도이다. 환자의 생사를 다루는 의사는 맥상에 대한 지각이 매우 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맥이 느리면서 강하면 이를 건강한 상태라 하는데 이렇게 빠르기, 강도 등 맥을 여러 차원으로 분화하여 진찰한다고 한다(신재룡, 1989). 이는 우리가 외국 사람보다 한글에서 유사한 글자들을 더 잘 변별하는 것이나 포도주 감별사가 맛으로 수백 가지를 감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양, 2006). 이러한 초월적 지각현상은 전통적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의사는 손목이라는 부분에서 몸 전체나 정신까지 진단한다. 서양 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부분이 전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부분에 담긴다는 패러다임을 갖는다. 이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에 들어간다는 역설이다. 이를 Mandelbrot(1973)는 ‘Fractal’이라 하였고, Bohm(1980)은 ‘접혀진 질서(folded order)’라 한다. ‘접혀진 질서’는 초현대의 신과학적 패러다임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Hologram 사진술로 예시할 수 있다(Wilber, 1982). 이 사진의 원판은 그 부분 조각으로도 전체 사진을 복원해 낼 수 있다(이상수, 1988)<sup>4)</sup>. 이는 원판의 일부분이 그 해당 부위의 사진만을 복사시키는 전통적 사진술과 다른 것이다. 최근 뇌신경기제로 의식을 설명하려는 모델 중 맥진을 지지하는 것도 있다. 전통적으로 신경기제는 특정 의식을 부위 한정적으로 명세하고 모든 부위를 합하여 의식의 전체를 구성한다고 본다(Sperry, 1974). 이를 국소주의라 한다. 부분이 전체를 담는다는 손목 진맥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부분은 항상 전체의 부분이라는 국소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소주의는 신경과학 내에서 비판이 받는데 이 중 Pribram(1971)의 이론이 주목을 끈다. 그는 ‘뇌손상으로 초래한 특정 의식 결손은 특정 국소 손상이 아니라 손상 부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증상을 예시하면서 ‘등잡재성’을 주장하였다. 원숭이 하측두엽을 손상시켜 형태 재인의 결손(이를 Kluver-Bucy 증후군이라 부름)을 관찰하였는데 그 증상군은 손상 부위에 한정되지 않고 손상 크기에 상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등잡재성은 한의학 진맥을 이해하는 접혀진 질서나 Hologram 원리와

4) Dennis Gabor가 1947년 수학적 원리를 발견했고 Hologram이라 명명했다.



같다고 할 수 있다.

氣의 개념화는 주객의 이분 패러다임을 벗어나 주체와 객체를 조화시키는 패러다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주체에서 객체를 보고, 객체에서 주체를 찾는다. 이는 사람이 자연과 합일하는 도(道)의 경지를 구가하는 듯하고, 자연의 대기(大氣)와 사람의 심신지기(心身之氣)를 일치시키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얻는 듯하다(손병욱, 2004). 이는 동양의 전통을 접목하여 접혀진 질서를 찾는 현대물리학이 주도하는 신과학과 나란히 하면서(김재희, 1994), 형이상학의 해체를 선언한 포스트모더니즘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신승환, 2003).

### 참고문헌

권순홍 (2005 역). 사유란 무엇인가. 서울: 길출판사.  
 권오현 (1991). 노자. 서울: 일신서적.  
 김용주 (1994 역). 뉴에이지 혁명. 서울: 정신세계사.  
 김재희 (1994). 신과학의 산책. 서울: 김영사.  
 김철수 (2004 역). 아이 투 아이: 감각의 눈, 이성의 눈, 관조의 눈. 서울: 대원출판사.  
 류의근 (1987 역). 마음의 문제. 서울: 서광사.  
 박병철, 공국진 (1992 역). 과학은 지금 물질에서 마음으로 가고 있다. 서울: 고려원.  
 박희준 (1978 역). 氣란 무엇인가. 서울: 정신세계사.  
 손병욱 (2004 역). 氣學. 서울: 통나무.  
 신승환 (2003). 포스트모더니즘의 성찰. 서울: 살림.  
 신재룡 (1989). 알기 쉬운 한의학. 서울: 동화문화사.  
 오강남 (1999). 장자. 서울: 현암사.

윤시순 (1998). 한국의 성리학과 실학. 서울: 삼인.  
 이상수 (1988). 레이저스텍클과 홀로그래피. 서울: 교학연구사.  
 이양 (2001). 과학으로 본 마음. 서울: 교육출판사.  
 이양 (2003). 표기처리과정. 조명한(편), 언어심리학. 서울: 학지사.  
 이양 (2006). 심리학으로 본 氣. 서울: 교육과학사.  
 이양 (2007). 길이지각에서 기. 경상대학교 미출간 논문.  
 장현근 (2004). 중국사상의 뿌리. 서울: 살림.  
 조승욱 (1983 역). 심리철학. 서울: 종로서적.  
 최한기 (1857). 기학.  
 최효선 (1993 역). 야누스: 혁명적 홀론이론. 서울: 범양사.  
 Bandura, A., Ross, D., & Ross, S. A. (1963). Imitation of film-mediated aggressive mode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3-11.  
 Bhalla, M. & Proffitt, D. R. (1999). Visual-motor recalibration in geographical slant percep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25, 1076-1096.  
 Bohm, D. (1980). *Wholeness and the implicate order*. London.  
 Bruner, J. S. (1973). *Beyond information given*. NY: Norton & Company.  
 Capra, F. (1975). *The tao of physics*. Berkeley.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The MIT Press.  
 Collins, A. M., & Quillian, M. R. (1969). Retrieval time from semantic memory. *Journal of Verbal Learning & Verbal Behavior*, 18, 240-247.  
 Eysenck, H. J., & Rachman, S. (1965). *The causes and cures of neurosis*. California: Robert R.

- Knapp.
- Gibson, J. J. (1979).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NJ: Erlbaum.
- Gregory, R. L. (1974). *Concepts and mechanisms of perception*. NY: Charles Scribner's Sons.
- Hochberg, J. (1956). Perception: Toward the recovery of a definition. *Psychological Review*, 63, 400-405.
- Kuhn, T. 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N. (1989). *Taoistic idea and modern psychology*. Presented at Annual Conference of Korea Taoistic Society.
- Lee, Y. (2004). *Kib and psychology*. Paper presen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 new perspective for the 21th century: The ecological and dynamical systems approach. Kangnam University Korea.
- Lee, Y., Jo, K., Ko, J., Shin, K., & Shaw, R. (2007). *We can zoom in target*. Paper presented in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ception and Action, Yokohama Japan.
- Mandelbrot, B. (1973). *Fractal: Form chance dimension*. San Francisco.
- Neisser, U. (1967). *Cognitive psychology*. NY: Appleton Century Crofts.
- Pavlov, I. P. (1927). *Conditioned refle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ribram, K. H. (1971). *Language and the brain: Experimental paradox and principles in neuropsychology*. NJ: Erlbaum.
- Proffitt, D. R., Stefanucci, J. K., Banton, T., & Epstein, W. (2003). The role of effort in distance perception. *Psychological Science*, 14, 106-113.
- Skinner, B. F. (1938). *The behavior of organisms*. NY: Appleton Century Crofts.
- Sperry, R. W. (1974). Lateral specialization in the surgically separated hemispheres. In F. Schmitt & F. Worden (Eds.), *The neuroscience: Third study program*. MA: The MIT Press.
- Tolman, E. C. (1948). Cognitive maps in rats and men. *Psychological Review*, 55, 189-208.
- Turvey, M. T. (2004). *No ghost and no machine*. Paper presen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 new perspective for the 21th century: The ecological and dynamical systems approach. Kangnam University Korea.
- Turvey, M. T., & Shaw, R. E. (1995). Toward an ecological physics and physical psychology. In R. L. Solso & D. W. Massaro (Eds.), *The science of the mind: 2001 and beyon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Watson, J. B. (1923). *Behaviorism*. NY: Norton.
- Whitten, W. K., Bronson, P., & Greenstein, J. (1968). Estrus- inducing pheromones of male mice transport by movement of air. *Science*, 161, 584-585.
- Wilber, K. (1982). *Holographic paradigm*. MA: New Science Library.
- Witt, J. K., & Proffitt, D. R. (2005). See the ball, hit the ball: Apparent ball size is correlated with batting average. *Psychological Science*, 16, 937-938.
- Woodworth, R. S. (1938). *Experimental psychology*. NY: Henry Holt.

1 차원고접수 : 2007. 4. 25.  
수정원고접수 : 2007. 11. 28.  
최종게재결정 : 2007. 12. 3.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07, Vol. 26, No. 2, 63-83

## Issues on Kih in Psychology

Yang Lee Gyeonsang National University	Hyungsae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Jaehong Ko Kyungnam University
Keonho Shin Kangnam University	Nampyo Lee Hanyang University	Robert Shaw University of Connecticut

Psychology has continued to formulate and refine a variety of paradigms for providing solutions to the questions of mind. Cognitive and neurological approaches emerged as new techniques and technologies became available. Such paradigms have been necessary to develop the proper methodology for psychological investigation, even as these newly developed methods raise fresh questions concomitant to their answers. Surveyed critically, all of them could not be free from the traditional metaphysics founded in a dichotomy between subject and object, like the current scientific trends. So, it is required that the alternative paradigms of psychology be founded on differing assumptions on the relationship of mind, body and their environment. Given the subject-object dichotomy, constructivist and cognitive approaches tended towards the subjective extremes, but behaviorism and the neurological approaches were just biased to the objective ones. To overcome the dichotic bias, the third entity may be postulated that shares the subject and the object. The new attempt was observed in the ecological approach, Kih might be conceptualized in psychology as a new paradigm. According to the ancient Asian understanding of Kih, it could be defined not as belonging to the subject and the object, but as sharing both extremes. Conceptually, the Kih model provides a high level of refinement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object, the relationship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the coordination between perception and motion, and other physiological mechanisms. The current experiments showed that Kih affected perceptual changes. The Kih model will hopefully shed light on psychology.

*Key words: postmodernism, ecological approach, Kih*